KOREA FASHION ASSOCIATION
한국패션협회

K-FASHION, K-FUTURE

www.koreafashion.org

(0618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빌딩 16층
[문의] 사업3부 정다운 과장 02-528-0116 dwjung@koreafashion.org

한국패션협회, 11월 9일 「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」 개최 … K-패션 제조의 미래와 성장전략 제안

- WHO MAKES K-FASHION? 기후위기와 AI 전환 시대, K-패션 제조의 역할과 경쟁력 모색 -
- KAIST 김승겸 · 리빌더AI 김정현 · 트렌드랩506 이정민 · 비에파 · EAAH 윤순민 전문가 참여 -

□ K-패션의 경쟁력은 누가, 어떻게 만드는가. 기후변화와 AI 기술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재편되면서 브랜드의 제품 기획과 디자인을 고품질 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. 올해 의류제조 혁신포럼에서는 제조 역량을 K-패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한다.

□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의 지원으로 오는 11월 9일(월요일) 오후 3시 서울 영원무역 명동빌딩 9층에서 「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」을 개최한다.

이번 포럼은 △'WHO MAKES K-FASHION? K-패션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'을 주제로, 패션 브랜드와 테크 기업, 제조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활용과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한국패션협회는 의류제조 혁신포럼을 통해 국내 의류제조업의 혁신 방향과 수출 경쟁력 강화(2023), 차세대 K-패션 제조모델 구축(2024), AI·휴머노이드·DX 기반 제조혁신과 미래(2025) 등 산업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.

| "WHO MAKES K-FASHION? K-패션 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

□ [키노트 세션] K-패션의 미래, 무엇이 달라지는가

○ 카이스트(KAIST) AI미래학과 김승겸 교수는 '기후위기 시대, 기술과 환경 변화가 바꾸는 사회의 미래지형과 패션산업'을 주제로 기후변화 적응 및 AI 기반 도시·산업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시대의 패션산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.

□ [스페셜 세션·패널 토론] K-패션은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

▲트렌드랩506 이정민 대표는 패션 제조 기반과 밸류체인 간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.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▲리빌더에이아이(리빌더AI) 김정현 대표가 AI 기반 디자인과 3D 데이터 기술을 제조 현장의 암묵지와 연결하는 사례를 ▲비에파 윤순민 대표(브랜드 이아'EAAH')는 기획·생산·배송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(End-to-End) 프로세스가 제조 방식과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한다.

□ 「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」 참석을 희망하는 패션 브랜드 및 의류제조기업 관계자는 한국패션협회 홈페이지(koreafashion.org)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,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.

※ 문의 : 한국패션협회 정다운 과장(02-528-0116/0119 mfg@koreafashion.org)





2026 의류제조 혁신포럼 ©한국패션협회